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

창 16:1-6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절망에 빠져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만약 기도응답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늦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응답이 지연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좌절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안 되면 되게 하라,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면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응답이 늦어진다고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 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의 표시로 언약식까지 했습니다. 날에는 두 나라 혹은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피가 똑똑 떨어지는 짐승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을 맺는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언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마 너무 확신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부흥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경험했고 그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내 사래는 생산치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 절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성경은 그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래의 현실적인 고민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식까지 했지만 사래는 아니었습니다. 사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래는 깊은 신앙의 회의 속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래는 고민과 갈등 끝에 설득력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냅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내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내 몸중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번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더 현명한 일 일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래는 2 절에 보면 이런 자기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우리는 여기 사래의 말에서 그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래는 자기 상황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야’ 라고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례는 틀렸다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쉼표를 찍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사례는 분명히 아기를 가질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례의 나이와 관계없이 아기를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금방 마침표를 찍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해도 마음대로 ‘이젠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100 세가 되고 사례가 임신 불가능한 나이까지 가서야 아기를 주셨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인데, 그것은 사례가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하나님은 그 곳에 쉼표를 찍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실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나이만을 보고, 자기의 상황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환경을 먼저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 되는 것이 없는 자신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제에 접근하는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을 먼저보고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문제를 보는 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내어 죽게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홍해를 보았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다음에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골리앗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빌립보 감옥이라는 상황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먼저 보고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갈등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래가 내세운 인간적인 방법은 바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자기 대신 하갈이 낳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 아들 낳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래의 이런 불신앙적인 제의를 당연히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래의 제안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래의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수락하고 맙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3절을 보면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십 년 후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때가 75 세였고 지금 10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간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한지 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계속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년 수가 늘어나면 믿음도 좀 성숙할 법 한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성숙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 사래의 말 사이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향해 담대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은 그때부터 그 여주인 사래를 멸시하게 됩니다. 몸종인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게 되자 아마 사래는 당황한 것 같습니다. 사래는 하갈을 단순히 임신의 도구, 즉 씨받이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래 뜻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멸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의 몸종이 주인행사를 하려 할 때 사래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화가 난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5 절입니다.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수는 누가 한 것입니까? 사래입니다. 그런데 화는 누가 냅니까? 사래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더 화를 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더 큰소리칩니다. 실수는 사래 자신이 하고서는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씹습니다. 죄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한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인 방법이나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갈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싸움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길,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래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래가 하갈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또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래 사이에 가정불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랍민족의 조상됩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이 그 후에 얼마나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민족,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 사이의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대책을 세울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입니다. 좀 어리석게 보여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